

평생교육 참여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정재현, 임세영, 강현정*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the Participation in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by Types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Jae-Hun Jeong, Se-Young Lim, Hyun-Jung Kang*
Chungcheongnam-do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교육 기초실태를 분석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를 유형화 하여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충남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4,108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에 따라 3개의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고, 학습누리형, 학습편중형, 실버학습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평생교육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하면서 즐기는 집단이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보편적으로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집단으로 3가지 분야에만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전형적인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이다. 셋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참여경험이 두번째로 많고,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이며, 학습편중형집단은 가장 많은 집단이며, 참여관심과 참여의사는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분야에서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시민참여교육, 군집분석, 참여관심, 참여의사, 평생교육

Abstract This study used data from '2016 Chungnam Citizens' Lifelong Education Needs Survey'. This analyzed the basic situ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It also typifies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lifelong education by region, and compared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concrete basic data for activat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in Chungnam. We analyzed data of 4,108 people in 2016 lifelong education needs survey. This was named enjoy learning type, bias earning type, and elderly learning type. Second, the enjoy learning type group is a group that enjoys participating throughout lifelong education area. bias earning type group is a group that perceives that lifelong education is limited to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culture art education, and liberal arts education. These are groups that are interested and participating only in three areas. The elderly learning type group is a group that shows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earners and is a group that is concentrated on participation in culture arts education. Third, enjoy learning type group is the second most experienced participant. They are the group with the highest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bias earning type group is the group with the highest participation experience. They are also the second highest group of participating interest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elderly learning type group is the group with lowest participation experience,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Finally, we suggest the ways to revitalize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in lifelong education.

Key Words :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cluster analysis, participation interest, participation intention, lifelong education

*This thesis has been studied as part of the research project of Chungcheongnam-do Institute Lifelong Education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Kang (khj0323@cile.or.kr)

Received November 13, 2017

Revised November 17,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촛불혁명’, ‘촛불민주주의’로 일컬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진보를 이루었고 시민교육, 시민참여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촛불혁명에서 시민들은 대의적 참여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정보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SNS, 인터넷, 그리고 광장을 통해 적극적 의사표현과 토론을 하였으며, 연대를 통해 행동하였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그 자체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이고[1], 극적 의사 표현과 참여는 시민정신(Civic virtue), 시민의식(Citizen ship)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불가결한 요소이며[2], 시민참여 활성화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승화[3]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 참여는 그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이 규칙의 선택과 공공정책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행동[4]이기에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큰 요인 중 하나인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대중이 선거(사회, 공동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5] 이기에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발달한 서구 유럽에서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시민교육(또는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80년대 투표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9년에 ‘시티즌십(Citizen ship)’교육을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으로 논의하였고[6],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시티즌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도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체득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후반에 독일의 아덴하워재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소개된 이후 대부분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입법화를 위한 노력들과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제도화에는 미흡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

는 이가 많아 이를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교육부,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포괄하는 전달체계를 가진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이 시도[7]되고 있다. ‘시민대학’, ‘시민교양대학’ 또는 ‘인문학 강좌’등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인문교양교육 강좌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서조차 인기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평생교육의 육진분류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시민참여교육’이라 명명하고, 현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는[8]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민교육과 혼용되며, 명확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 또한, 인문 강좌 위주의 단발성 프로그램에 치우쳐 있다.

시민참여교육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이 해당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교육에 해당하는 많은 교육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평생교육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교육이 평생교육 분야의 시민참여교육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적은 게 현실이다.

또한 비형식교육 중 시민참여교육 참여율은 1% 수준으로 매우 낮다[9].

이에 시민참여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이 향후 참여의향이 높은 결과[10,11]를 반영하여 시민참여교육 외의 다른 영역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의 시민참여교육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한편 시대적인 관심과 [12]의 조사 결과 사회참여관련 강좌(시민지도자과정, 시민참여교육강좌)를 14.0%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 관련 10.3%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참여교육에 관한 기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3]과 [14]는 시민참여교육 방법의 가장 우선순위 된 기본 원칙으로 학습자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교육 기초실태를 분석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를 유형화,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충남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를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 하고, 둘째,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별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참여경험, 참여관심과 시민참여교육 참여의사의 차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분야에서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1 시민참여교육의 개념

모든 시민은 학습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참여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된 평생교육 분야의 하나이다.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시민리더 역량프로그램, 시민책무성프로그램이 시민참여교육에 속하고 있다[8].

시민참여교육이라는 용어는 2007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법 등 관련 자료에도 시민참여교육의 정확한 정의는 나타나지 않았다[15].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에서도 시민참여교육이라고 하기 보다는 또 다른 해석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민참여교육에 대하여는 [16]의 '한국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제 개발 연구'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시민교육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교육을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과 개인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시민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한분야로 분류하였다. 즉 시민참여교육은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참여

자 스스로 느끼고 깨우치면서 역량을 통한 시민성 향상을 강화할 수 있다[17].

하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의 연관성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비슷해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18].

이에 따라 현재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논의는 시민참여와 평생학습의 관계에 대한 조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시민의 참여로 인한 공동체의 인식변화와 참여하지 못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역량을 키우고 변화하는 자기주도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 등을 담은 포괄적 범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시행되는 본 연구에서는 [8]의 연구에 따라 현재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시민참여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2 시민참여교육 관련 선행연구

시민참여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시민성교육 등 여러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 개념과 같이 혼재되어 있다. 시민교육을 위주로 살펴보면, 첫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민참여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관련성 등을 살펴본 연구 [17,19-23]은 극히 적은 수준이며, [17]은 시민참여교육의 철학이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의 특성을 질적사례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으며, [21]은 시민참여교육 수요 성인학습자들의 후속활동에 관하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후속 모임 구성 및 활동과정을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20]은 시민참여교육 교수자의 가르침 경험에 관한 의미를 탐색하는 현상학적 연구를 하였다. [17]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요구분석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시민참여교육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요구를 파악한 구체적인 연구이다.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시민교육을 논의한 연구[22,23]을 살펴보면, [22]는 시민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시민교육

의 의의 및 방향성을 살펴보고 시민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하였고, 평생교육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3]은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적 측면으로 시민교육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둘째, 그 외 시민교육관련 연구[22-26]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2]는 시민사회 단체의 시민교육을 살펴보고 시민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24]는 우리나라 정치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증하고 민주시민교육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고, [25]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6]은 시민교육이 시민성 형성과 강화를 통한 시민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시민참여활동이 다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높여서 시민참여활동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밝혀내는 등 다양한 대상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분야에서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참여교육과 시민교육이 혼용되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은 정치적 자아개념과 합리적인 문제해결력, 신념과 태도, 인성 등과 관계가 깊고, 정치적 자아개념은 교육의 정도와 사회 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요인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요인이며 상황 변수로 작용했다[27]. 사회적 요인은 외적이며 사회경제의 발전은 정부 기능의 확대를 가져오고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촉진해 시민들의 참여 증대를 가져온다[28]. 그리고 개인적 요인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함께 교육의 정도였다. 또한 [1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요구가 다름이 나타났고, 남자는 시민참여활동 영역의 토론 능력을 통한 갈등 해소 의사소통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여성은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는 교육과정으로 자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교육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6 충남도민요구조사’는 2016년 8월 한달 동안 충남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을 하였다. 총 4,110부 회수 설문지 중에 유효한 설문 4,1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2 측정도구

충남도민 요구조사는 평생교육참여실태, 평생교육참여요구도, 평생교육참여성과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실태 중 한국 평생교육의 6대 비형식영역인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 참여관심과, 참여의사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 경험은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개별 참여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영역별 참여관심과 참여의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정도는?”의 질문을 통해 개별 유형별로 5점리커트형 척도(1점 매우 약하다, 2점 약하다, 3점 보통이다, 4점 강하다, 5점 매우 강하다)로 점수가 클수록 관심과 의사가 큰 것으로 측정하였다.

1.3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 중 남성 31.8%, 여성 68.2%로 남녀 성비가 1:2로 구성되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24.3%이고, 70대이상 17.3%, 40대는 16.1%, 50대는 15.8%, 20대, 30대는 각각 13.5%, 13.0% 순이었다. 학력 수준은 대졸이상이 38.7%로 가장 많고 고졸 29.7%, 중졸 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인 경우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2.0%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8.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거주 지역은 시지역, 군지역이 2:1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종별로는 주무 및 무직이 가장 많은 37.5%, 사무관리전문직 30.0%, 판매서비스운송직이 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은 300만원 초과인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 4,108)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number of people)	percent age(%)
Gender	male	1296	31.8
	female	2780	68.2
Age	20's	554	13.5
	30's	532	13.0
	40's	663	16.1
	50's	997	24.3
	60's	650	15.8
	more than 70's	712	17.3
Education	No degree	184	4.5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489	12.1
	middle School graduation	607	15.0
	high school graduation	1206	29.7
	College or higher	1572	38.7
Marital status	single	1150	28.0
	married	2958	72.0
Residence	County Area	1525	37.1
	City Area	2583	62.9
Occupation	Office management profession	1231	30.0
	Sales Service Transporter	726	17.7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08	7.5
	Simple Function	304	7.4
	Housewife unemployed	1539	37.5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808	20.1
	Less than 2 million won	997	24.8
	Less than 3 million won	1011	25.1
	More than 3 million won	124	3.0

1.4 분석방법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에 따른 시민참여 교육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과 평균차이 분석을 하였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4,108명의 성인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유형화 하였다. 둘째, 유형화된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였고, Duncan을 통해 사후분석을 하였다. 셋째,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 유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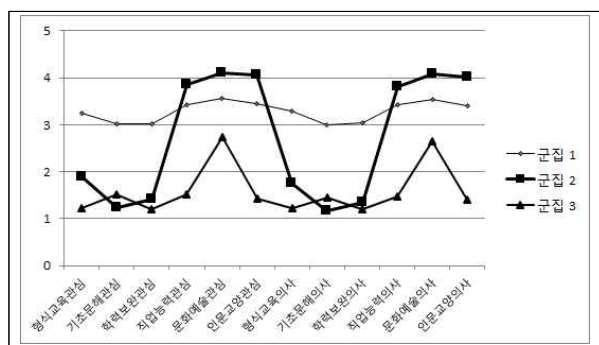
4. 연구결과

1.1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별 군집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에 따른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의 참

<Table 2> Typification of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lifelong education (N = 3,980)

	Cluster1(enjoy learning type) (N=1,854/46.58 %)	Cluster2(bias earning type) (N=930/23.37 %)	Cluster3(elderly learning type)(N=1,196 /30.05%)
	M	M	M
Formal education interest	3	2	1
Basic Literacy Education interest	3	1	2
Degree Complementary education interest	3	1	1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interest	3	4	2
Culture arts education interest	4	4	3
Liberal arts education interest	3	4	1
Formal education participation intention	3	2	1
Basic Literacy Education participation intention	3	1	1
Degree Complementary education participation intention	3	1	1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participation intention	3	4	1
Culture arts education participation intention	4	4	3
Liberal arts education participation intention	3	4	1



[Fig. 1] Typification of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lifelong education

여관심과 참여의사에 응답한 3,980명을 대상으로 K-means에 의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림 1). 첫 번째 유형은 전체 3,980명중에서 1,854명인 46.58%에 해당되는 가장 큰 집단으로, 이 유형은 전체 영역에서 보통 수

준 이상의 높은 관심을 고르게 보인 집단으로 “학습누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 3,980명중에서 930명인 23.37%에 해당되는 가장 작은 집단으로, 이 유형은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만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으로 “학습편중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전체 3,980명중에서 1,196명인 30.05%가 해당되는 집단으로 문화예술교육에만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으로 “실버학습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1.2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의 유형별 특성의 차이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거주지역, 직종, 월소득을 통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3), 그 결과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종, 월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습누리형 집단’은 50대가 가장 많으나 전체적으로 인구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습편중형 집단’은 40대와 50대의 연령분포가 많으며, 70대이상의 비율이 매우 낮게 분포되어 있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70대이상의 분포율이 다른 연령대비 많으며, 50대와 60대의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학력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습누리형 집단’은 다른 학력수준대비 대졸이상이 가장 많으나 중졸, 고졸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학습편중형 집단’은 대졸이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고졸이 많았으나, 다른 집단대비 초졸의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도시지역거주비율이 60%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비율이 높았으며, ‘실버학습형’은 도시지역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습누리형 집단’은 사무관리전문직, 판매서비스운송직, 주부무직의 비율이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사무관리전문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실버학습형 집단’은 주부무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ersonal characteristics by type of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lifelong educ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enjoy learning type	bias earning type	elderly learning type	χ^2
Gender	male(n=1252) female(n=2703)	605(32.9) 1236(67.1)	292(31.6) 633(68.4)	355(29.9) 834(70.1)	3.021
Age	20's(n=552) 30's(n=523) 40's(n=648) 50's(n=961) 60's(n=616) more than 70's (n=680)	302(16.3) 267(14.4) 310(16.7) 483(26.1) 247(13.3) 245(13.2)	123(13.2) 180(19.4) 239(25.7) 235(25.3) 108(11.6) 45(4.8)	127(10.6) 76(6.4) 99(8.3) 243(20.3) 261(21.8) 390(32.6)	509.403***
Education	No degree(n=183) Elementary school graduation(n=479) middle School graduation(n=587) high school graduation(n=1157) College or higher(n=1537)	51(2.8) 213(11.6) 420(22.9) 486(26.5) 664(36.2)	4(0.4) 22(2.4) 38(4.1) 250(27.1) 609(66.0)	128(10.8) 244(20.6) 129(10.9) 421(35.5) 264(22.3)	734.874***
Marital status	single(n=1105) married(n=2875)	536(28.9) 1318(71.1)	242(26.0) 688(74.0)	327(27.3) 869(72.7)	2.730
Residence	County Area(n=1454) City Area(n=2526)	680(37.2) 1164(62.8)	364(39.1) 566(60.9)	400(33.4) 796(66.6)	8.019*
Occupation	Office management profession(n=1194) Sales Service Transporter(n=71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n=293) Simple Function(n=296) Housewife unemployed(n=1486)	500(27.0) 476(25.7) 175(9.4) 198(10.7) 505(27.2)	478(51.4) 93(10.0) 33(3.5) 41(4.4) 285(30.6)	216(18.1) 142(11.9) 85(7.1) 57(4.8) 696(58.2)	603.621***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n=781) Less than 2 million won(n=968) Less than 3 million won(n=992) More than 3 million won(n=1167)	235(12.9) 494(27.1) 530(29.1) 564(30.9)	85(9.2) 188(20.5) 239(26.0) 407(44.3)	461(39.5) 286(24.5) 223(19.1) 196(16.8)	492.042***

*p<.05, ***p<.001

월소득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습누리형 집단’은 2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300만원 초과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고, ‘학습편중형 집단’은 300만원 초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버학습형 집단’은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1.3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의 차이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의 참여경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9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학습편중형 집단’은 10%로 그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누리형 9.2%, 실버학습형 1.9%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의 참여관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누리형 집단’이 3.22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편중형 집단’과 ‘실버학습형 집단’ 순으로 참여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교육 참여의사의 차이는 ‘학습누리형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편중형 집단과 ‘실버학습형 집단’ 순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에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누리형 집단’이 시민참여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Experience in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by type of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lifelong education (N = 2,985)

Division		learning nuri type	bias earning type	elderly learning type	Sum	x ² valu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n=3980)	Not participating	1683(90.8)	837(90.0)	1173(98.1)	3693(92.8)	72013***
	participating	171(9.2)	93(10.0)	23(1.9)	287(7.2)	

***p<.001

<Table 5> Difference between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by type of particip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f lifelong education (N = 3,980)

Division		N	M(SD)	F	Duncan
Participation Interest of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n=3980)	learning nuri type	1753	3.22(.953)	1119.526***	a
	bias earning type	815	2.89(1.429)		b
	learning silver type	1156	1.39(.837)		c
Participation Inten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n=3980)	learning nuri type	1786	3.17(.985)	1045.358***	a
	bias earning type	835	2.87(1.433)		b
	elderly learning type	1152	1.38(.824)		c

***p<.001

5. 결론 및 제언

1.1 결론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성인의 시민참여교육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2016 충남도민평생교육요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충남도민 4,108명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영역별 참여관심과 참여의사에 따른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경험과 관심, 참여의사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들 유형에 따른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에 따라 3개의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고, 학습누리형, 학습편중형, 실버학습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평생교육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하면서 즐기는 집단이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보편적으로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집단으로 3가지 분야에만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전형적인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이다. 셋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참여경험이 두번째로 많고,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이며, 학습편중형집단은 가장 많은 집단이며, 참여관심과 참여의사는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각각 집단의 유형에 맞는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1.2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평생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별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평생교육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하면서 즐기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50대가 가장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치우침 없이 대부분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많은 평생학습분야에 가장 많은 참여연령대로 지목되는 여러 연구들[11,12]에서 나타난 가장 활발한 활동 집단이다. 즉 학습누리형 집단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시민참여교육 맛보기 수업을 운영한다거나, 보다 다양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충분히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에는 시민참여교육에 관한 시범학습, 오리엔테이션 같은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 참여해 보고 선택할 수 있

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2]와 [29]는 시민일반에 대한 교육과 시민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시민단체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시민교육 전문가로 양성되어 보다 활발한 시민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집단으로, [17]이 주장한 시민참여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동아리와 같이 자연스럽게 발전 될 수 있게 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둘째, 학습편중형 집단은 보편적으로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집단으로 3가지 분야에만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이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40대와 50대의 대졸이상의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주로 해당이 된다. 이러한 집단에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직장내에서 혹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민참여교육의 중요성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버학습형 집단은 전형적인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은 문화예술 교육으로 여가시간을 즐기는 집단으로 시민참여교육이라는 용어자체에도 이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실버학습형 집단에는 직접적인 시민참여교육에 참여 독려를 요구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시민참여교육을 제공하면서 서서히 시민참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양성평등 시간을 잠깐 할애 하여 운영한다. 주도적인 참여에 자칫 직접적으로 시민참여교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다가 평생교육 참여 자체에 흥미를 잃을 위험요인이 있다. 이는 [30]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이론보다 실천적 차원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과과정에 시민교육이 포함시켜 운영하자는 주장과 같다.

본 연구 결과 학습누리형 집단이 시민참여교육 관심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시민참여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활발히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집단에 대한 전략적인 참여제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평생교육 참여자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참여 독려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

렵다. 각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3 연구의 제한점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영역별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성인의 시민참여교육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은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평생교육분야에서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한 상황에서 우선 6진분류에 따른 개념으로 한정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향후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의견합치가 될 수 있는 개념 정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는 충남도민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로 전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전국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져 전국민에게 일반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보다 자세한 시민참여교육 관련 세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2차 데이터 이용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교육 등 특정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평생교육 영역이 인문학교육 등 보다 넓은 영역의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홍보과 관심 유발차원과 함께 보다 시민참여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지표마련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Alford, R. Robert,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New York: Rand McNally and Co. 1969.
- [2] M. K. Kim, "The political education expenses of Korea and Germany", *Education Culture Research*, Vol.15, pp.33-63. 2009.
- [3] I. S. Sim, "Reform Alternatives and Future Orientations of Community Center in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search*, Vol. 26, No.4, pp.57-84. 2012.
- [4] McClosky, H.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2, pp.252-265, 1968.

- [5] Uchida, M., "Coping with Indifferent Voters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Vol.12, No.1, pp.129-136, 2007.
- [6] K. S. Han, "A Study on the Political Education in England: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ship a Statutory Subject in a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Vol.12, pp.45-76. 2013.
- [7] H. S. Shin, *A Study of the Analysis of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PhD Thesis. 2010.
- [8] J. H. Kim,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09
- [9]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Actual Condition of Lifelong Learning for Korean Adults in 2016*,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 [10] Y. S. Choi, "An Analytical Study on Conditions and Nature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for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2, No.1, pp.1-35. 2006.
- [11] H. J. Kang, Y. J. Kim, J. H. Jung, S. M. Kim, H. S. Yang, J. H. Kim, Y. Y. Mun, *An Examination of Lifelong Education Needs for Chungnam Province Residents in Chungnam Province*, Chungcheongnam-do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2016.
- [12]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Result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Survey Results Repor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6.
- [13] Y. S. Huh, "A Methodology for the Methodology of Thermological Structuralization", Korean Society for Civic Education Vol.10, pp.19-58. 2005.
- [14] H. J. Lee, *Citizen's Training Field Guideline 2*, Civil education meaning and methods, 2010.
- [15] K. M. Lee, *A Study on Participative-Learning Method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6] J. W. Kim, Y. W. Go, J. H. Kyun, M. J. J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in Korea*, Lifelong education of education, 2010.
- [17] J. H. An, *An Analysis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Participatory Education Program*,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8] M. S. Shin, "A Study on the Role of Lifelong Education for Revital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Northeast Asian, Vol.61, pp.219-242. 2011.
- [19] J. Y. Kim, *The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of Civil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20] J. Y. Kim, *The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of Civil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21] J. S. Park, *A Study on Follow up Activity of Adult Learners who Complete Civil participation Education: focusing on<civil leader Academ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2] C. Y. Kim,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Civil Education in View of Lifelong Education", Proceedings of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19. pp.137-154. 2004.
- [23] Y. M. Lee, "The Significance of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Expansion of Civic Education : Focused on Citizen Education", Civil education research, Vol.46, No.3, pp.195-221, 2014.
- [24] D. C. Shin. "A Study of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Korean Citizen Ethics Association, Vol.22, No.2, pp.159-164. 2009.
- [25] M. H. Kim, "The Need for Civic Education and Its Conceptual Condition", Lifelong education of education, Vol.17, No.3, pp.193-221, 2011.
- [26] S. H. Kim.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ivil Educ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Korea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University thesis. 2014.
- [27] J. H. Chou,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itizen training", Civil education research, Vol.31, pp.369-388. 2000.
- [28] Huntington, Samuel P., Joan M. Nelson.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Vol.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29] S. M. Park, "A Study on the Problems of Korean Civil Liberties Education as a Korean Lifelong Education", Ethics Education Research, pp.35-39. 2005.
- [30] N.G. Kim,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Korean Civic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31] H. J. Lee, "Convergence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careerpreparation behavior etc. by resilience clusters of studentsmajoring in Medic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4, pp 67-77. 2017.

정 재 현(Jae-Heon 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5년 2월 :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행정학박사)
- 2016년 6월 ~ 현재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획운영실장

- 관심분야 : 주민참여, 평생교육, 지방분권
- E-Mail : jjh0607@cile.or.kr

임 세 영(Se-Young Lim) [정회원]



- 2004년 2월 : 우송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2015년 10월 ~ 현재 :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선임연구원
- 2017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평생교육 참여, 취약계층 평생교육, 문해교육, 시민교육
- E-Mail : lsy1012@cile.or.kr

강 현 정(Hyun-Jung Kang) [정회원]



- 2005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1년 7월 ~ 2014년 6월 : 한서대학교 연구조교수(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연구정보팀장
- 관심분야 : 노인교육, 평생교육, 노년학, 사회복지
- E-Mail : khj0323@cile.or.kr